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

곽낙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한국무예사 전공
nakhyun@aks.ac.kr

I. 머리말

II.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

III.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과제

IV. 맺음말

이 연구는 2015년 12월 12일 한국스포츠인류학회 제20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2015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중국 선양에서 남북 및 해외 민간단체들이 회의(사전접촉)를 진행한 결과, 남북이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를 통해 남북 씨름대회와 태권도 시범행사, 경평축구대회 추진 등 민족스포츠키류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을 통해 다양한 남북 공동체육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만, 대중들은 한시적인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남북 체육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한이 함께 전통무예를 시연하고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¹⁾

현재 남한은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06호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이 2009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제정되어 전통무예를 진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²⁾ 이러한 법 제도적 틀 안에서 전통무예 단체들은 다양한 무예 공연과 재현 등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소개하고 있다. 전통무예 단체들이 재현하여 소개하는 무예들은 조선 정조대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장창·죽장창·당과·기창·낭선 등 5기, 쌍수도·예도·왜검·왜검교전·제독검·본국검·쌍검·월도·협도·등패 등 10기, 권법·곤방·편곤 등 3기, 기창·마상쌍검·마상월도·마상편곤·격구·마상재 등 6기 등 무예 24기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³⁾ 이 책은 1790년(정조 14)에 한문본 4권 4책과 언해본 1권 1책으로 구성된 총 5권 5책으로 편찬되었다.⁴⁾ 정조의 어명에 따라 편찬된 『무예도보통지』는 서문을 정조가 직접 쓰고, 편찬책임자로 이덕무, 글씨에 박제가, 무예실기에 백동수, 그림에 김홍도 등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남한의 전통무예 단체들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24기를 중심으로 각 단체별로 전통시대의 군사복장과 병장기를 제작하여 무예들을

1) 껍낙현,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동향」, 『한국체육사학회지』 20(4)(2015b), 34쪽.

2)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3) 껍낙현, 「조선의 대표적 무에서 『무예도보통지』」, 『월간 문화재』 358호(2014c), 17쪽.

4) 『武藝圖譜通志』(K3-275 1-4 장서각소장본); 正祖命撰, 『武藝圖譜通志影印本 全』(경문사, 1981); 正祖命撰, 『武通志影印本』(弘文閣, 1989).

재현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과거의 무예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무형문화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예도보통지』의 편찬배경보다는 무예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권법을 활용하여 예술영화 〈평양날파람〉을 제작하여 전통주의 시각에서 태권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무예도보통지』는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통시대 병서이자 무예서이다. 현재 남한은 무형문화의 관점에서 전통무예 기법을 재현하는 표준무예서로,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 계승, 발전해야 하는 기록유산의 ‘문화재보’로 바라보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무예도보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무예도보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학술적 접근방법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공동연구 또는 학술적 교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다. 남북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과 남한에서 소장하고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판본 및 내용 그리고 형태, 기법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고문헌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한의 학술적 접근방법과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공동연구 주제 기획 및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결과제는 남한과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지금까지 『무예도보통지』에 대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예도보통지』의 연구 현황에 대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향후 『무예도보통지』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이 『무예도보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의 남북한 연구 성과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며, 연구 절차는

남한과 북한의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검토하고, 향후 『무예도보통지』의 연구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무예도보통지』의 균형 잡힌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II.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

1. 남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

지금까지 남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는 대학교 연구소지에 실린 13편과 학술지에 게재된 66편으로 총 79편이다.⁵⁾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도학 6편, 무용학 4편, 한문학 1편, 한국사학 9편, 국어학 3편, 미술사학 1편, 민속학 5편, 체육학 37편, 기타⁶⁾ 13편으로 총 9개 분야 79편이다. 이를 통해 다른 학문분야보다 체육학 분야에서 『무예도보통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무도학 분야인 『대한무도학회지』에는 『무예도보통지』의 쌍수도에 대한 연구⁷⁾와 정조대에 창설된 장용영의 무예 내용⁸⁾ 2편,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의 『무도연구소지』에는 조선시대의 수박과 권법⁹⁾, 검도 본(本)의 문화적 구조¹⁰⁾, 예도의 무예 실제 분석¹¹⁾, 『무예도보통지』의 마상무예의 특성과 실제¹²⁾ 등의

5) 남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는 곽낙현의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동양고전연구』 55, 2014a, 202-210쪽)을 재인용하였으며, 2014년, 2015년의 연구 성과는 보완하였다. 기존 논문에서는 학위논문, 대학교부설 연구소 논문집, 학술지 논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6)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포괄적으로 게재하는 학술지는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다.

7) 박귀순·신영권, 「『무예도보통지』의 쌍수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비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동작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12(3) (2010), 17-34쪽.

8) 이성진·김의영, 「조선시대 정조대 장용영의 무예」, 『대한무도학회지』 13(1)(2011), 187-198쪽.

9) 나영일, 「조선시대의 수박과 권법에 대하여」, 『무도연구소지』 8(2)(1997b), 63-76쪽.

10) 김영학·허건식·곽낙현·윤동식, 「검도 본의 문화적 구조」, 『무도연구소지』 20(1) (2009), 61-71쪽.

논문 4편이 있다.

표1-『무예도보통지』 연구 현황

학술지명	학회명	학문분야	편수	총계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	무도학	2	6		
무도연구소지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4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대한무용학회	무용학	2	4		
한국무용교육학회지	한국무용교육협회		1			
우리춤연구	우리춤연구소		1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한문학	1	1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한국사학	1	9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			
진단학보	진단학회		5			
중앙사론	한국중앙사학회		1			
문장	문장사	국어학	1	3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1			
덕성여대 논문집	덕성여자대학교		1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미술사학	1	1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민속학	1	5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회		2			
한국학지	한국재단		1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			
스포츠인류학연구	한국스포츠인류학회	체육학	6	37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1			
한국체육사학회지	한국체육사학회		12			
한국체육철학회지	한국체육철학회		2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		6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2			
강남대학교 논문집	강남대학교		1			
체육연구소 논문집	강원대체육과학연구소		3			
과학논집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			
대전공업전문학교 논문집	대전공업전문학교		1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서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			
디지털정책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기타		1	13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1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7				
온지논총	온지학회	2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1				
한복문화	한복문화학회	1				
총 계				79	79	

- 11) 송일훈·이태현·장성호·장경태·김대양, 「예도의 미시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무예 실체에 관한 분석」, 『무도연구소지』 22(1)(2011), 45-58쪽.
- 12) 최형국,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마상무예의 특성과 실제」, 『무도연구소지』 22(1)(2011a), 11-26쪽.

무용학에서는 『대한무용학회 논문집』에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과 『무예도보통지』 검술을 기초로 한 조선검무에 대한 내용이 2편이다.¹³⁾ 『한국무용교육학회지』에는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에 관한 것으로 『정재무도홀기』와 『무예도보통지』를 비교하는 내용 1편이다.¹⁴⁾ 『우리춤연구』에는 임진왜란기 왜검교육과 『무예제보번역속집』 왜검을 비교하는 내용 1편이다.¹⁵⁾

한문학에서는 『동방한문학』에 『무예도보통지』와 『규장전운』의 문집 비교를 통한 자형을 검토한 연구 1편¹⁶⁾이다. 한국사학의 『동아시아고대학』에는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것으로 마상무예에 대한 내용 1편¹⁷⁾, 『역사와 실학』에는 지방의 기병부대 창설과 마상무예, 그리고 수원화성과 마상무예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내용 연구 2편¹⁸⁾, 『진단학보』에는 『무예도보통지』를 국어학, 역사학, 미술사학, 체육학에서 종합적 검토를 시도한 내용 5편¹⁹⁾, 『중앙사론』에는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영 강화에 관련된 내용 1편이다.²⁰⁾

국어학의 『문장』에는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소개 글 1편²¹⁾, 『한말연구』에는 『무예도보통지』 언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1편²²⁾, 『덕성여대 논문집』에는 『무예도보통지언해』의 한자음 연구

-
- 13) 김미영,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3 - 『무예도보통지』 에도를 바탕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1(2009c), 67-105쪽; 김미영, 「『무예도보통지』 검술을 기초로 한 조선검무의 춤 동작과 사상성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9(2011), 1-23쪽.
- 14) 김미영,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1 - 『정재무도홀기』,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3)(2009a), 47-63쪽.
- 15) 허인옥, 「임진왜란기 조선의 왜검교육과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왜검, 『우리춤연구』 3(2006), 99-121쪽.
- 16) 조성덕, 「『무예도보통지』의 자형검토 - 『규장전운』과 18세기 문집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54(2013), 221-249쪽.
- 17) 정형호,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11(2005), 5-53쪽.
- 18) 최형국, 「조선 숙종대 지방 기병부대 창설과 마상무예의 변화, 『역사와 실학』 44(2011b), 91-116쪽; 최형국, 「전통무예와 군사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수원화성과 무예 24기 중 마상무예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8(2012a), 219-243쪽.
- 19) 나영일,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진단학보』 91(2001b), 283-409쪽; 정병모, 「『무예도보통지』의 관화, 『진단학보』 91(2001), 411-443쪽;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2001), 331-354쪽; 이현희, 「『무예도보통지』와 그 언해본, 『진단학보』 91(2001), 445-456쪽; 노영구, 「조선 후기 단병전술의 추이와 『무예도보통지』의 성격, 『진단학보』 91(2001), 355-381쪽.
- 20) 김준혁,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영 강화, 『중앙사론』 21(2005), 290-315쪽.
- 21)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8)(1940), 215-231쪽.

1편²³⁾이다. 미술사학의 『미술사연구』에는 정조시대 관관본 관화 연구에서 『무예도보통지』 그림에 대한 내용 1편²⁴⁾이다.

민속학의 『비교민속학』에는 동아시아 격구의 전승 양상과 비교 연구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격구 내용이 1편²⁵⁾, 『역사민속학』에는 정조대 병서 간행 내용과 조선 전기 무과에서의 격구 도입배경과 실제 등 2편²⁶⁾, 『한국학지』에는 전통 한국무에서인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1편²⁷⁾, 『고문화』에는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칼에 대해 설명한 연구 1편이다.²⁸⁾

체육학의 『스포츠인류학연구』에는 조선 후기 도검무예의 조선정착기(서평)²⁹⁾,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무예의 체계에 관한 내용³⁰⁾, 한국무예의 기록 작성³¹⁾, 무에서의 권법의 동작기술 비교³²⁾, 십팔기, 십팔계, 용어 기원과 기술배경³³⁾에 관한 내용 6편, 『한국체육과학회지』에는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에 관한 연구 1편³⁴⁾, 『한국체육사학회지』에는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의 도입과정³⁵⁾, 조선시대의 수박

-
- 22) 이근영, 「무예도보통지언해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4(2009), 141-163쪽.
 23) 현숙자, 「『무예도보통지언해』의 한자음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 34(2005), 21-43쪽.
 24) 이혜경, 「정조시대 관관본 관화 연구」, 『미술사연구』 20(2006), 237-272쪽.
 25) 정형호, 「동아시아 격구의 전승 양상과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41(2010), 253-285쪽.
 26) 최형국,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간행: 인신과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2012b), 101-132쪽; 최형국, 「조선전기 무과에서의 격구 도입배경과 그 실제」, 『역사민속학』 42(2013), 71-102쪽.
 27) 심우성, 「전통 한국무에서 무예도보통지」, 『한국학지』 14(4)(2000), 4-7쪽.
 28)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 60(2002), 65-99쪽.
 29) 허인욱, 「조선 후기 도검무예의 조선 정착기 -곽낙현의 『조선의 칼과 무예』(학고방, 2014)」, 『스포츠인류학연구』 9(2)(2015), 77-84쪽.
 30) 박귀순, 「한국전통무예의 체계에 관한 시론 -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스포츠인류학연구』 1(2006), 49-71쪽.
 31) 나영일, 「한국 무예의 기록 작성에 대하여」, 『스포츠인류학연구』 1(2006), 31-47쪽.
 32) 박귀순, 「스포츠인류학 연구의 접근방법: 16세기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의 병법 - 무예에서의 권법의 '점주세' 동작기술 비교 사례를」, 『스포츠인류학연구』 2(2007), 15-21쪽.
 33) 박기동·김용수, 「십팔기와 십팔계 용어의 기원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4(2)(2009), 101-123쪽; 박기동·김용수·김용근, 「중국 민간무술 십팔기, 십팔계와 십팔수 용어의 기술배경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6(2)(2011), 153-176쪽.
 34) 박귀순,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5)(2013), 3-12쪽.
 35) 나영일,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의 도입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7(2001), 144-154쪽.

회³⁶⁾, 본국검의 기원³⁷⁾, 조선 후기의 쌍검³⁸⁾, 명과 조선의 무예서와 기술방법 비교³⁹⁾, 김체건과 『무예도보통지』의 왜검⁴⁰⁾, 『무예도보통지』의 세⁴¹⁾, 『무예도보통지』의 쌍수도, 예도, 제독검, 본국검 도검자세 분석⁴²⁾, 『무예도보통지』 무예론⁴³⁾, 『무예도보통지』의 인용서목 연구⁴⁴⁾, 체육수업에서 역사를 말하다 『무예도보통지』 “예도”를 적용한 투기도전 활동을 중심으로⁴⁵⁾, 『무예도보통지』의 곤방의 기술에 대한 연구⁴⁶⁾ 등 12편, 『한국체육철학회지』에는 『교방가요』와 『무예도보통지』의 검무 동작을 비교한 연구⁴⁷⁾와 한국 전통검도의 현대적 의의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⁴⁸⁾ 등 2편, 『한국체육학회지』에는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⁴⁹⁾, 『악학궤범』과 『무예도보통지』 비교를 통한 전통무용과 무예의 미적 특성⁵⁰⁾, 『무예도보통지』와 『기효신서』의 권법 비교,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분류 특징⁵¹⁾, 『무예도보통지』, 『수비록』, 『민속화보』

-
- 36) 정찬모·이신영, 「조선시대의 수박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8(2001), 96-111쪽.
- 37) 허인옥, 「본국검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1(2003a), 59-70쪽.
- 38) 허인옥, 「조선후기의 쌍검」, 『한국체육사학회지』 12(2003b), 80-89쪽.
- 39) 김산·공미애, 「임진왜란 전후의 명의 무예서들과 조선의 무예서들과의 기술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2(2003), 68-79쪽.
- 40) 허인옥·김산, 「김체건과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왜검」, 『한국체육사학회지』 11(2003), 36-43쪽.
- 41) 김산·김주화, 「『무예도보통지』의 세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3(2004), 1-12쪽.
- 42) 곽낙현,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도검자세에 관한 고찰 - 쌍수도, 예도, 제독검, 본국검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2(1)(2007a), 85-98쪽.
- 43)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무예론에 관한 연구-수련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2(2)(2007), 29-44쪽.
- 44) 곽낙현, 「『무예도보통지』의 인용서목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8(3)(2013b), 17-30쪽.
- 45) 김명권, 「체육수업에서 역사를 말하다. 『무예도보통지』 “예도”를 적용한 투기도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9(1)(2014), 1-13쪽.
- 46) 박귀순·신영권, 「『무예도보통지』의 곤방의 기술(技術)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2)(2015), 79-92쪽.
- 47) 김미영,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2 - 『교방가요』,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17(4)(2009b), 299-315쪽.
- 48) 이성문·여인성, 「한국전통검도의 현대적 의의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1(1)(2013), 239-254쪽.
- 49) 나영일,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4)(1997a), 9-23쪽.
- 50) 경임순, 「전통무용과 무예의 미적 특성에 관한 고찰 - 『악학궤범』과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6(1)(1997), 1,457-1,468쪽.
- 51)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비교를 통한 장창 연구⁵²⁾, 일본(日本) 등삼신사(藤森神社)에 전승(傳承)되는 조선(朝鮮)의 마상재(馬上才)⁵³⁾ 등 6편,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는 정조대왕 무예관의 거시적 관점으로 본 『무예도보통지』의 복원, 재현 연구⁵⁴⁾, 『무예도보통지』 월도 기법 분석⁵⁵⁾ 등 2편이다.

이어 강남대학교 논문집에는 『무예도보통지』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가 1편⁵⁶⁾, 강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의 『체육연구소 논문집』에는 『무예제보』의 사료적 가치⁵⁷⁾, 『무예도보통지』의 저술 인물과 사상⁵⁸⁾, 그리고 본국검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⁵⁹⁾에 대한 내용 등 3편이다.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과학논집』에는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의 세 종류에 관한 연구⁶⁰⁾ 1편, 대전공업전문학교의 『논문집』에는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⁶¹⁾ 1편, 서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의 『체육연구소 논문집』에는 조선조의 무사시취제도에 관련된 무예 및 체력 검정과 무사시취제도를 중심으로 쓴 논문 2편⁶²⁾이다.

기타로는 『디지털정책연구』에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마상무예와 복식과 무기의 갖추 상황에서의 무예 연구 1편⁶³⁾, 『월간사회평론

『한국체육학회지』 41(4)(2002), 29-40쪽;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무예 분류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44(4)(2005), 45-54쪽.

- 52) 김산·김주화·김장우·송일훈, 「한, 중, 일 장병무예 장창 연구 - 『무예도보통지』 『수비록』 『민속화보』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7(6)(2008), 39-49쪽.
- 53) 이찬우, 「일본(日本) 등삼신사(藤森神社)에 전승(傳承)되는 조선(朝鮮)의 마상재(馬上才)」, 『한국체육학회지』 53(4)(2014), 17-27쪽.
- 54) 안진규·송일훈, 「정조대왕 무예관의 거시적 관점으로 본 『무예도보통지』의 복원, 재현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2014), 187-204쪽.
- 55) 박낙현, 「『무예도보통지』 월도 기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2014b), 23-30쪽.
- 56) 양재용·김성재·최명호, 「무예도보통지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43(2004), 1-20쪽.
- 57)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사료적 가치」,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8(1994), 101-110쪽.
- 58) 박기동·김상구, 「무예도보통지의 분포와 그 시대적 배경 - 관련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7(1992), 83-97쪽.
- 59) 박기동, 「전통무예의 특수성과 보편성: 본국검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20(1996), 55-58쪽.
- 60) 전영식·최성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의 세 종류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5(2009), 47-62쪽.
- 61) 안영희,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에 관한 연구」, 『대전공업전문학교 논문집』 21(2)(1977), 27-36쪽.
- 62) 나영일, 「조선조의 무사시취제도에 나타난 무예 및 체력검정에 관한 연구(1)」, 『체육연구소 논문집』 10(1)(1989), 29-37쪽; 나영일,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관한 연구: 무사시취제도를 중심으로」, 『체육연구소 논문집』 20(1)(1999), 69쪽, 87쪽.

길』에는 『무예도보통지』를 통한 민족무예의 역사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간략한 책 소개가 1편⁶⁴⁾, 이 외에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동양고전연구』에는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무인 박제가⁶⁵⁾, 이덕무의 무예관, 『무예도보통지』의 근간이 되는 『기효신서절요』에 대한 검토⁶⁶⁾, 전통무예서의 권법분석⁶⁷⁾,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⁶⁸⁾, 조선시대 무에서 언해에 나타난 무기명 고찰⁶⁹⁾, 『무예도보통지』 등패(藤牌) 기법 분석⁷⁰⁾ 등 7편, 『온지논총』에는 『무예도보통지』의 왜검 기법과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백동수의 연구가 2편⁷¹⁾, 『인문콘텐츠』에는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 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⁷²⁾ 1편, 『한복문화』에는 조선시대 보예관복(步藝冠服) 망수의(蟒繡衣)의 실질적 운용⁷³⁾ 1편이다.

이상과 같이 학술지에 실린 79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의 연구자들은 각 주제별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의 역사와 사상, 본국검, 권법, 예도, 수박 등 기법 비교, 무사시취제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배경과 편찬인물, 인용서목, 언해, 무기명, 무예서의 소개 등에 관한 역사적 연구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창·도검·권법·마상무예·무기명 등 다양한 종류의 무예 기법에 대한 동작기술, 자세, 복식 등의 분석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책과 비교하는

-
- 63) 황호영·최재근, 「복식의 무기의 갖추 상황에서의 무예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1)(2013), 413-421쪽.
- 64) 이용복, 「민족무예의 역사성 확보 - 『무예도보통지』」, 『월간사회평론 길』 96(1996), 222-223쪽.
- 65) 나영일, 「무인 박제가」, 『동양고전연구』 23(2005), 99-120쪽.
- 66) 광낙현, 「이덕무의 생애와 무예관 -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2007b), 414-440쪽; 광낙현, 「조선후기 『기효신서절요』에 대한 검토」, 『동양고전연구』 42(2011), 355-378쪽.
- 67) 광낙현·임태희, 「전통무예서의 권법 분석」, 『동양고전연구』 54(2014), 289-318쪽.
- 68) 광낙현, 앞의 논문(2014a), 193-222쪽.
- 69) 광낙현·이현주, 「조선시대 무에서 언해에 나타난 무기명 고찰」, 『동양고전연구』 5(2014), 263-299쪽.
- 70) 광낙현, 「『무예도보통지』 등패(藤牌) 기법 분석」, 『동양고전연구』 58(2015a), 211-232쪽.
- 71) 광낙현, 「『무예도보통지』 왜검 기법 연구」, 『온지논총』 34(2013a), 327-367쪽; 광낙현, 「백동수의 생애와 무예관」, 『온지논총』 37(2013c) 189-213쪽.
- 72) 김준혁,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 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인문콘텐츠』 34(2014), 213-237쪽.
- 73) 박가영, 「조선시대 보예관복(步藝冠服) 망수의(蟒繡衣)의 실질적 운용」, 『한복문화』 17(3)(2014), 161-173쪽.

연구 등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진단학보』에 실린 5편의 『무예도보통지』 관련 연구 성과는 국어학, 역사학, 미술사학, 체육학의 학제 간 연구라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

북한에 대한 『무예도보통지』 현황은 통일부 북학자료센터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정보관 특수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문헌 10편, 영화 1편 등 총 11편이었다.⁷⁴⁾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진이 10편이지만 『무예도보통지』 사진만 실려 있는 문헌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조희승은 『무예도보통지』 연구 5편으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조희승의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1982년부터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격구와 권법에 대한 내용을

표2- 북한 『무예도보통지』 연구 현황

순번	연도	저자	유형	연구 주제	학술지
1	1982	조희승	문헌	(풍속) 고려의 격구와 타구	천리마
2	1982	조희승	문헌	리조권법	천리마
3	1991	리봉수	문헌	(그림과 글) 화가 김홍도와 책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	천리마
4	2006	조희승	문헌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민족문화유산
5	2006	조희승	문헌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조선여성
6	2006	조희승	문헌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천리마
7	2006	저자 미상	사진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민족문화유산
8	2006	저자 미상	문헌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인민교육
9	2006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영화	평양날피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10	2012	본사 기자	문헌	귀중한 민족문화유산 - 『무예도보통지』	조선여성
11	2013	김준철	문헌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경위에 대하여	역사과학

74) 광낙현, 앞의 논문(2015b), 33-47쪽에 실려 있는 내용을 축약하여 재인용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정보관 특수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천리마』, 『조선여성』, 『민족문화유산』 3개뿐이다. 나머지는 통일부 북학자료센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월간 『천리마』지에 연속해서 게재하였다.⁷⁵⁾ 이어 2006년에도 2편의 『무예도보통지』 내용을 게재하였다. 『천리마』지에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⁷⁶⁾에 대한 내용을 실었고, 『조선녀성』지에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⁷⁷⁾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어 『민족문화유산』지에 『천리마』지에 실었던 『무예도보통지』 내용을 「우리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⁷⁸⁾라는 제목으로 다시 강조하여 게재하였다.

이 외에도 리봉수(1991)는 『천리마』지에 ‘그림과 글 - 화가 김홍도와 책’이라는 코너에서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⁷⁹⁾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2006년에는 『민족문화유산』에 저자 미상으로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의 실물 표지 4권과 왜검보와 본국검총도의 사진이 실렸다.⁸⁰⁾ 한편, 2006년 『조선녀성』과 『인민교육』지에는 무명씨와 조희승이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⁸¹⁾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각각 게재하였다. 이후 2012년 본사 기자가 『조선녀성』지에 「귀중한 민족문화유산 - 『무예도보통지』」⁸²⁾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김준철이 『력사과학』지에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경위에 대하여」⁸³⁾라는 제목으로 편찬내용에 대해 게재하였다.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중에서 1991년에 리봉수가 제시한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 2013년 김준철의 『무예도보통지』 편찬경위는 통사적 관점에서 다루었고, 미시적인 관점에

75) 조희승, 「(풍속)고려의 격구와 타구」, 『천리마』 11월호(천리마사, 1982a), 111-112쪽; 조희승, 「리조권법」, 『천리마』 12월호(천리마사, 1982b), 104-105쪽.

76) 조희승,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천리마』 12월호(천리마사, 2006b), 87쪽.

77) 조희승,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조선녀성』 11호(문학예술출판사, 2006a), 51쪽.

78) 조희승,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무예도보통지』」, 『민족문화유산』 24호(조선문화보존사, 2006c), 10-11쪽.

79) 리봉수, 「(그림과 글) 화가 김홍도와 책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 『천리마』 9월호(천리마사, 2013), 80-81쪽.

80) 저자 미상,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민족문화유산』 24호(조선문화보존사, 2006), 40쪽.

81) 저자 미상,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인민교육』 6(교육신문사, 2006), 25쪽.

82) 본사 기자, 「귀중한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조선녀성』 651호(문학예술출판사, 2012), 53쪽.

83) 김준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경위에 대하여」, 『력사과학』 3권 1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69-70쪽.

서 다룬 연구는 1982년 조희승이 『무예도보통지』 24기 중에서 권법과 격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머지는 2006년과 2012년 조희승과 기자가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무예도보통지』를 언급한 내용이다.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권법을 내용으로 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북한 영화 〈평양날과람〉⁸⁴⁾은 1시간 43분짜리 영화로서 고구려에서 고려와 조선으로 연결하는 ‘조선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군조상 숭배사상을 바탕으로 고구려,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맨손무예에 대한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 영화를 통해 전통주의 시각에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이 모태가 되어 택견으로 전승되어 태권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전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영화의 특징은 택(남자)과 견(여자)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 반도 택견인 권법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북한의 태권도와 연결하여 북한태권도의 전통성을 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위와 같이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천리마』 4편, 『조선녀성』 2편, 『민족문화유산』 2편, 『인민교육』 1편, 『력사과학』 1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평양날과람〉 영화 1편이다. 남한 연구와의 차이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내용을 제시한 후, 저자의 『무예도보통지』와 관련된 견해를 1장에서 2장 내외로 함축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시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을 통해 『천리마』에 제시된 김일성의 교시는 체육과 력사 학습을 통한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이어 김정일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력사, 지리, 문학, 예술, 세계 여러 나라의 일반상식을 함양하라고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내용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것은 체육과 역사였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는 체육과 역사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투쟁과 창조의 역사에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지닌 무에서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녀성』에 제시된 김정일의 교시이다. 김정일은 역사를

84)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북한 영화 〈평양날과람〉(평양: 조선예술촬영소, 2006).

표3-김일성·김정일 교시 내용

유형	연구 주제(연도)	교시자	교시 내용
천 리 마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2006)	김정일	우리는 자기 민족의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림과 글) 화가 김홍도와 책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1991)	김정일	모든 일꾼들이 력사와 지리, 문학과 예술, 세계 여러나라의 형편들에 대한 일반상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풍속) 고려의 격구와 타구(1982)	김일성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강한가 약한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인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하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인민이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체육을 잘하여야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의지도 굳세어집니다.
	리조권법(1982)	김일성	우리가 력사를 학습하자는 것은 왕이나 봉건통치자들의 력사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적 력사를 알자는 것입니다.
조선 녀성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2006)	김정일	민족의 슬기와 력사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여집니다.
	귀중한 민족문화유산 - 『무예도보통지』(2012)	김정일	우리 인민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창조적 력사였습니다.
민족 문화 유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2006)	김정일	민족의 슬기와 력사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여집니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발전하여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자료입니다.
력사 과학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경위에 대하여(201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전하여 주는 귀중한 실물자료입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투쟁과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무예도보통지』는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적재보의 하나로 북한 역사에 중요한 위상을 지닌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민족문화유산』에 제시된 김정일의 교시이다. 김정일은 이 민족의 슬기와 역사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으며, 역사유적과 유물은 실물자료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⁸⁵⁾ 이를 토대로 『무예도보통지』는 기록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력사과학』에 제시된 김일성의 교시이다.⁸⁶⁾ 김일성은 민족문화유산은 귀중한 실물자료이며,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예도보통지』는 민족문화유산의 귀중한 실물자료로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재적 기록유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의 북한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모두 다른 연구자의 선행연구가 생략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학자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전통성을 이어온 문화계승과 보존의 차원에서 『무예도보통지』를 문화재보로 인식하여 전통시대의 기록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중 『무예도보통지』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조희승을 꼽을 수 있다. 이 외에 북한영화 <평양날과람>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권법이 오늘날의 태권과 태권도로 연결되어 맨손무예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III.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과제

남한의 연구들은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주제별 연구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한국사학에서는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편찬배경에 주목하고, 체육학 및 무도학 분야에서는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기법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무용학에서는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동작을 바탕으로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교재를 연구했으며, 국어학에서는 주로 언해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술사학에서는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그림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남한의 연구는 각 개별 학문분야에 집중하여 다른 학문분야와의 소통이 부족하였다.

반면, 북한의 연구들은 남한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연구

85)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정일 선집』 1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1쪽.

8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전집』 제10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65쪽.

내용과 분량도 단순하고 획일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의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북한의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생략되고, 연구자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제시한 후, 연구자의 『무예도보통지』의 견해를 1장에서 2장 내외로 함축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연구가 차이 나는 것은 학술적 교류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연구자들은 『무예도보통지』를 신체기법의 무형유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의 연구자들은 『무예도보통지』를 조선시대의 전통성을 이어온 문화 계승과 보존의 기록유산의 문화재보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무예도보통지』 연구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무예도보통지』의 연구 방향과 나아가야 할 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적인 시각에서 학문의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남한은 9개 학문분야에 총 79편이 게재되었다. 학문분야별로 체육학 37편, 기타 13편, 한국사학 9편, 무도학 6편, 민속학 5편, 무용학 4편, 국어학 3편, 한문학 1편, 미술사학 1편이다.

모두 개별적인 학문 영역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조명한 연구이다. 그러한 가운데 2001년 진단학회의 주관으로 『무예도보통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에서 국어학, 한국사학, 미술사학, 체육학 등 4개 분야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무예도보통지』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아쉽게도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은 11편의 연구 성과가 있다. 이 중에서 영상기록인 영화와 『무예도보통지』의 표지와 내용을 실물 사진만 실은 문헌을 제외하면 9편이다. 남한의 연구 성과에 비하여 미약하지만 연구논문 작성에서 차이점이 있다. 『무예도보통지』 연구 시 남한의 연구자는 항상 선행 연구자의 연구를 검토하는 특징이 있지만, 북한의 연구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제시한 뒤 바로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함축하여 1장에서 2장 내외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예도보통지』는 선행연구 검토가 생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의 분량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향후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학제 간 융합 연구에 주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남한의 주제별 연구와 북한의 ‘문화재보’로 인식하는 연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 연구로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무예도보통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학문분야와 융합 연구를 시도할 때 『무예도보통지』의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한 공동의 무예를 공유하고 연구하여 전 세계의 학자와 무예인들에게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를 소개하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학술지 간 소통할 수 있는 표준주제어 확정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연구방식이 다르고, 각 학문분야 학술지마다 주제어와 키워드로 제시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도 주제어를 일정한 표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에 기초하여 임의로 수록하기 때문에 유사한 논문에 수록된 주제어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주제어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무예도보통지』 연구의 학문적 통일성과 체계성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의 남북한 공용 표준주제어를 확정하여 학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 남북한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주제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예도보통지』 범례에는 창을 기준으로 찌르는 자(刺), 도를 기준으로 찍어 베는 감(砍), 권을 기준으로 치는 격(擊)의 법 세 가지를 기준 삼아, 책 4권에 무예 24기를 순서대로 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장창·죽장창·기창·당파·기창(騎槍)·낭선 등의 찌르는 자법 유형, 권2는 쌍수도·예도·왜검·왜검교전, 권3은 제독검·본국검·쌍검·마상쌍검·월도·마상월도·협도·등패 등의 찍어 베는 감법, 권4는 권법·곤방·편곤·마상편곤·격구·마상재 등의 치는 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게는 무기 유형을 기준으로 장병무예, 단병무예, 맨손무예 또는 도수무예, 마상무예 등으로 분류하는 대분류와 장창, 쌍수도, 본국검 등의 세부 명칭을 가지고 분류하는 소분류가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학문 연구에 필요한 표준주제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학 용어는 세계 공통으로 지정된 표준주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연구자들이 최신의 연구를 공통주제어로 검색하여 누구나 쉽게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학문 연구의 틈새를 찾아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용의 표준주제어를 확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공동으로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DB를 통한 온라인 정보서비스가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여러 종류의 무예 기법을 만화, 애니메이션, 복원 및 재현, 축제, 영화, 연극 콘텐츠 등에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남북한의 『무예도보통지』의 연구자료를 축적하여 연구자들과 대중들이 손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 DB가 선행되어야 한다. DB 구축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무예 기법을 남한, 북한, 중국, 일본의 국가별 분류, 인물 이미지, 공간 형태, 무기 형태, 자세 동작, 주제어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 콘텐츠 생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콘텐츠 소재 개발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만화와 웹툰에서 〈조선왕조실록〉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무예도보통지』의 원형 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자원으로 가공하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천소스 자원공유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남한은 2008년 3월 28일 전통무예진흥법이 법률 제9006호로, 2009년 3월 29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제정되어 전통무예를 진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도적 틀 안에서 전통무예 단체들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들을 재현하여 전통성과 문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들에게

남한의 전통무예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공연콘텐츠로 개발하여 남산팔각정,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무예의 정기적인 시범공연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무형의 전통문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⁸⁷⁾

북한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활용하여 예술영화 <평양날파람>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존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예도보통지』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역사적 실물자료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계승·발전해야 하는 '문화재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이 『무예도보통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우리 조상들의 몸짓을 알 수 있는 무형의 신체문화와 기록을 통해 보존, 계승되는 기록문화로 보는 인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예도보통지』 연구는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의 문화재의 하나로 집적하여 세계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의 성과를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는 총 79편이다. 학문분야별로 체육학 37편, 기타 13편, 한국사학 9편, 무도학 6편, 민속학 5편, 무용학 4편, 국어학 3편, 한문학 1편, 미술사학 1편이다. 대표적 학술지로는 체육학에서는 『한국체육사학회지』, 『스포츠인류학연구』, 『한국체육학회지』, 기타 인문학에서는 『동양고전연구』, 한국사학에서는 『진단학보』 등을 꼽을 수 있다.

논문 주제로는 『무예도보통지』의 편찬배경과 편찬인물, 인용서목, 언해, 무기명, 무예서의 소개 등에 관한 역사적 연구와 『무예도보통지』에

87) 박낙현, 앞의 논문(2014c), 17쪽.

실려 있는 창, 도검, 권법, 마상무예, 무기명 등 다양한 종류의 무예 기법에 대한 동작기술, 자세, 복식 등의 분석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책과 비교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는 총 11편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천리마』 4편, 『조선녀성』 2편, 『민족문화유산』 2편, 『인민교육』 1편, 『력사과학』 1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평양날과람〉 영화 1편이다. 북한의 연구는 선행연구가 생략되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내용을 제시한 후, 저자의 『무예도보통지』와 관련된 견해를 1장에서 2장 내외로 함축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모두 조선시대의 전통성을 이어온 문화계승과 보존의 차원에서 『무예도보통지』를 문화재보로 인식하여 전통시대의 기록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방향이다. 첫 번째는 통합적 시각에서 학문의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남한의 개인 연구의 틈새를 북한의 집단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 학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표준주제어 확정 제시가 필요하다. 남북한 학술지마다 표제어와 키워드로 제시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제시되므로 『무예도보통지』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표준주제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 원형자원의 공유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무예도보통지』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의 문화재의 하나로 집적하여 세계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武藝圖譜通志』(K3-275 1-4 장서각소장본).
- 正祖命撰, 『武藝圖譜通志影印本 全』. 경문사, 1981.
- _____, 『武藝圖譜通志影印本』. 弘文閣, 1989.
-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 60, 2002, 65-99쪽.
- 경임순, 「전통무용과 무예의 미적 특성에 관한 고찰 - 『악학궤범』과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6(1), 1997, 1457-1468쪽.
- 박낙현,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도검자세에 관한 고찰 - 쌍수도, 예도, 제독검, 본국검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2(1), 2007a, 85-98쪽.
- _____, 「이덕무의 생애와 무예관 -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 2007b, 414-440쪽.
- _____, 「조선후기 『기효신서절요』에 대한 검토」. 『동양고전연구』 42, 2011, 355-378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왜검 기법 연구」. 『온지논총』 34, 2013a, 327-367쪽.
- _____, 「『무예도보통지』의 인용서목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8(3), 2013b, 17-30쪽.
- _____, 「백동수의 생애와 무예관」. 『온지논총』 37, 2013c, 189-213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 『동양고전연구』 55, 2014a, 193-221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월도 기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 2014b, 23-30쪽.
- _____, 「조선의 대표적 무에서 『무예도보통지』」. 『월간문화재』 358호, 2014c, 16-17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등패(藤牌) 기법 분석」. 『동양고전연구』 58, 2015a, 211-232쪽.
- _____,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동향」. 『한국체육사학회지』 20(4), 2015b, 33-47쪽.
- 박낙현·이현주, 「조선시대 무에서 언해에 나타난 무기명 고찰」. 『동양고전연구』 57, 2014, 263-299쪽.
- 박낙현·임태희, 「전통무예에서의 권법 분석」. 『동양고전연구』 54, 2014, 289-318쪽.
- 김명권, 「체육수업에서 역사를 말하다. 『무예도보통지』 “예도”를 적용한 투기도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9(1), 2014, 1-13쪽.
- 김미영,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1 - 『정재무도 흘기』,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3), 2009a, 47-63쪽.

- _____,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2 - 『교방 개요』,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2009b, 299-315쪽.
- _____, 「교육용 〈검무〉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동작 및 동작 유형 분석 3 - 『무예도보통지』 예도를 바탕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 2009c, 67-105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검술을 기초로 한 조선검무의 춤 동작과 사상성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9, 2011, 1-23쪽.
- 김산·공미애, 「임진왜란 전후의 명의 무예서들과 조선의 무예서들과의 기술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2, 2003, 68-79쪽.
- 김산·김주화, 「『무예도보통지』의 세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3, 2004, 1-12쪽.
- 김산·김주화·김창우·송일훈, 「한, 중, 일 장병무예 장창 연구 - 『무예도보통지』 『수비록』 『민속화보』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7(6), 2008, 39-49쪽.
- 김영학·허건식·곽낙현·윤동식, 「검도 본의 문화적 구조. 『무도연구소지』 20(1), 2009, 61-71쪽.
- 김준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경위에 대하여. 『력사과학』 3권 1호, 과학백과사 진출판사, 2013, 69-70쪽.
- 김준혁,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영 강화. 『중앙사론』 21, 2005, 290-315쪽.
- _____,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 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인문콘텐츠』 34, 2014, 213-237쪽.
- 나영일, 「조선조의 무사시취제도에 나타난 무예 및 체력검정에 관한 연구(1). 『체육연구소논문집』 10(1), 1989, 29-37쪽.
- _____,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4), 1997a, 9-23쪽.
- _____, 「조선시대의 수박과 권법에 대하여. 『무도연구소지』 8(2), 1997b, 63-76쪽.
- _____,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관한 연구: 무사시취제도를 중심으로. 『체육연구소 논문집』 20(1), 1999, 69-90쪽.
- _____,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의 도입 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7, 2001a, 144-154쪽.
- _____,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진단학보』 91, 2001b, 283-409쪽.
- _____, 「무인 박제가. 『동양고전연구』 23, 2005, 99-120쪽.
- _____, 「한국 무예의 기록 작성에 대하여. 『스포츠인류학연구』 1, 2006, 31-47쪽.
- 노영구, 「조선후기 단병전술의 추이와 『무예도보통지』의 성격. 『진단학보』 91, 2001, 355-381쪽.

- 리봉수, 「(그림과 글) 화가 김홍도와 책 『무예도보통지』의 인물삽화. 『천리마』 9월호, 천리마사, 2013, 80-81쪽.
- 박가영, 「조선시대 보예관복(步藝冠服) 망수의(蟒繡衣)의 실질적 운용. 『한복문화』 17(3), 2014, 161-173쪽.
- 박귀순, 「한국전통무예의 체계에 관한 시론 - 무예도보통지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류학연구』 1, 2006, 31-47쪽.
- _____, 「스포츠인류학 연구의 접근방법: 16세기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의 방법 - 무예에서의 권법의 '점주제' 동작기술 비교 사례를. 『스포츠인류학연구』 2, 2007, 15-21쪽.
- _____,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2013, 3-12쪽.
- 박귀순·신영권, 「『무예도보통지』의 쌍수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비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동작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12(3), 2010, 17-34쪽.
- _____, 「『무예도보통지』의 곤방의 기술(技術)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 과학회지』 20(2), 2015, 79-92쪽.
-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사료적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 1994, 101-110쪽.
- _____, 「전통무예의 특수성과 보편성: 본국검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20, 1996, 55-58쪽.
- 박기동·김상구, 「무예도보통지의 분포와 그 시대적 배경 - 관련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7, 1992, 83-97쪽.
- 박기동·김용수, 「십팔기와 십팔계 용어의 기원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4(2), 2009, 101-123쪽.
- 박기동·김용수·김용근, 「중국 민간무술 십팔기, 십팔계와 십팔수 용어의 기술 배경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6(2), 2011, 153-176쪽.
-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331-354쪽.
- 본사 기자, 「귀중한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조선여성』 651호, 문학예술출판사, 2012, 53쪽.
- 송일훈·이태현·장성호·장경태·김대양, 「예도의 미시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무예실체에 관한 분석. 『무도연구소지』 22(1), 2011, 45-58쪽.
- 심우성, 「전통 한국무에서 무예도보통지. 『한국학지』 14(4), 2000, 4-7쪽.
- 안영희,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에 관한 연구. 『대전공업전문학교 논문집』 21(2), 1977, 27-36쪽.
- 안진규·송일훈, 「정조대왕 무예관의 거시적 관점으로 본 『무예도보통지』의 복원,

- 재현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 2014, 187-204쪽.
- 양재용·김성재·최명호, 「무예도보통지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43, 2004, 1-20쪽.
- 이근영, 「무예도보통지언해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4, 2009, 141-163쪽.
-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8), 1940, 215-231쪽.
- 이성문·여인성, 「한국전통검도의 현대적 의의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2013, 239-254쪽.
- 이성진·김의영, 「조선시대 정조대 장용영의 무예」. 『대한무도학회지』 13(1), 2011, 187-198쪽.
- 이용복, 「민족무예의 역사성 확보 - 『무예도보통지』」. 『월간사회평론 길』 96, 1996, 222-223쪽.
- 이찬우, 「일본(日本) 등삼신사(藤森神社)에 전승(傳承)되는 조선(朝鮮)의 마상재(馬上才)」. 『한국체육학회지』 53(4), 2014, 17-27쪽.
- 이현희, 「『무예도보통지』와 그 언해본」. 『진단학보』 91, 2001, 445-456쪽.
- 이혜경, 「정조시대 관판본 관화 연구」. 『미술사연구』 20, 2006, 237-272쪽.
- 저자 미상,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인민교육』 6, 교육신문사, 2006, 25쪽.
- 전영식·최성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의 세 종류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5, 2009, 47-92쪽.
- 정병모, 「『무예도보통지』의 관화」. 『진단학보』 91, 2001, 411-443쪽.
- 정찬모·이신영, 「조선시대의 수박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8, 2001, 96-111쪽.
- 정형호,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11, 2005, 5-53쪽.
- _____, 「동아시아 격구의 전승 양상과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41, 2010, 253-285쪽.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김일성전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북한 영화 〈평양날과밤〉.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6.
- 조성덕, 「『무예도보통지』의 자형검토 - 『규장전운』과 18세기 문집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54, 2013, 221-249쪽.
- 조희승, 「(풍속)고려의 격구와 타구」, 『천리마』 11월호, 천리마사, 1982a, 111-112쪽.
- _____, 「리조권법」, 『천리마』 12월호, 천리마사, 1982b, 104-105쪽.
- _____,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조선녀성』 11호, 문학예술출판사, 2006a, 51쪽.
- _____,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 『무예도보통지』」. 『천리마』 12월호, 천리마사, 2006b, 87쪽.

- _____,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 『무예도보통지』」. 『민족문화유산』 24, 조선문화보존사, 2006c, 10-11쪽.
-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1(4), 2002, 29-40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무예 분류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44(4), 2005, 45-54쪽.
- _____, 「『무예도보통지』 무예론에 관한 연구 - 수련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2(2), 2007, 29-44쪽.
- 최형국,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마상무예의 특성과 실제」. 『무도연구소지』 22(1), 2011a, 11-26쪽.
- _____, 「조선 숙종대 지방 기병부대 창설과 마상무예의 변화」. 『역사와 실학』 44, 2011b, 91-116쪽.
- _____, 「전통무예와 군사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수원화성과 무예 24기 중 마상무예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8, 2012a, 219-243쪽.
- _____,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간행: 인신과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 2012b, 101-132쪽.
- _____, 「조선전기 무과에서의 격구 도입배경과 그 실제」. 『역사민속학』 42, 2013, 71-102쪽.
- 허인욱, 「본국검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1, 2003a, 59-70쪽.
- _____, 「조선후기의 쌍검」. 『한국체육사학회지』 12, 2003b, 80-89쪽.
- _____, 「임진왜란기 조선의 왜검교육과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왜검」. 『우리춤연구』 3, 2006, 99-121쪽.
- _____, 「조선후기 도검무예의 조선 정착기 - 박낙현의 『조선의 칼과 무예』(학고방, 2014)」. 『스포츠인류학연구』 9(2), 2015, 77-84쪽.
- 허인욱·김산, 「김채건과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왜검」. 『한국체육사학회지』 11, 2003, 36-43쪽.
- 현숙자, 「『무예도보통지언해』의 한자음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 34, 2005, 21-43쪽.
- 황호영·최재근, 「복식의 무기의 갖추 상황에서의 무예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1), 2013, 413-421쪽.

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를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는 총 79편이다.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체육학 37편, 기타 13편, 한국사학 9편, 무도학 6편, 민속학 5편, 무용학 4편, 국어학 3편, 한문학과 미술사학이 각 1편이다. 대표적 학술지로는 체육학에서는 『한국체육사학회지』, 『스포츠인류학연구』, 『한국체육학회지』, 기타 인문학에서는 『동양고전연구』, 한국사학에서는 『진단학보』 등을 꼽을 수 있다.

논문 주제로는 『무예도보통지』의 편찬배경과 편찬인물, 인용서목, 언해, 무기명, 무에서의 소개 등에 관한 역사적 연구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창, 도검, 권법, 마상무예, 무기명 등 다양한 종류의 무예 기법에 대한 동작기술, 자세, 복식 등의 분석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책과 비교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성과이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문헌 10편, 영화 1편 등 총 11편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천리마』 4편, 『조선녀성』 2편, 『민족문화유산』 2편, 『인민교육』 1편, 『력사과학』 1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평양날파람〉 영화 1편이다. 북한의 연구는 선행연구가 생략되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내용을 제시한 후, 『무예도보통지』와 관련된 저자의 견해를 1장에서 2장 내외로 함축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모두 조선시대의 전통성을 이어온 문화계승과 보존의 차원에서 『무예도보통지』를 문화재보로 인식하여 전통시대의 기록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 방향이다. 첫 번째는 통합적 시각에서 학문의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남한의 개인 연구의 틈새를 북한의 집단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 학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표준주제어 확정 제시가 필요하다. 남북한 학술지마다 표제어와 키워드로 제시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제시되므로 『무예도보통지』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표준주제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 원형자원의 공유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무예도보통지』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의 문화재의 하나로 집적하여 세계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5. 12. 24.

게재 확정일 2016. 2. 25.

주제어(keyword) 『무예도보통지』(*Muyedobotongji*),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성과(achievement), 연구동향(research trends), 연구지형도(research map)

A Study on Achievement and Task of *Muyedobotongji* in North and South Korea

Kwak, Nak-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hievement of a study on *Muyedobotongji*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in research.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the achievement of a study on *Muyedobotongji* in South Korea. 79 academic journals consist of 37 journals of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13 journals of others, 9 journals of Korean history, 6 journals of Martial arts, 5 journals of folklore, 4 journals of dance studies, 3 journals of Korean linguistics, each 1 journals of Chinese classics, and 1 journal of art history.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s are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nthropology*, and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in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in others, and *The Chin-TAN HAKPO* in Korean history. Through this, *Muyedobotongji* was animatedly reached at the most in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Second, there is the achievement of a study on *Muyedobotongji* in North Korea. Total 11 journals consist of 10 literatures and 1 movie from 1982 to 2015. Detailed types are 4 of *Chollima*, 2 of *Joseon Woman*, 2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1 *Education for the People*, 1 *Historical Science*, and 1 movie 「Pyongyang Nalpharam」 produced in Joseon Art Film Studio. A study in North Korea arranges an opinion related to *Muyedobotongji* of a writer by implication in 1 page or 2 pages after suggesting teaching of Kim Il Sung and Kim Jung Il.

Third, there is the result of a common study on *Muyedobotongji* in south and north Korea. First of all,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of the learning is needed. Next, final suggestion of the standard keywords to communicate between academic journal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base to use the technique of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in reality. Lastly, a method should be prepared to register a study of *Muyedobotongji* as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or UNESCO Memory of the World by accumulating recorde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through a common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